



## <마라도 고양이 가족 찾기 사진전> 소개



2023년 3월 3일, 마라도에서 태어나 마라도에서 살던 고양이 45마리가 섬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뿔쇠오리 보호를 목적으로 마라도에서 반출되었습니다. 입양(1마리) 및 임시보호(7마리) 중인 고양이를 제외한 37마리의 고양이들은 현재 세계자연유산본부에서 마련한 임시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2023 실행의제 유기동물 없는 섬, 상생 제주 만들기의 사업 일환으로 ‘마라도 고양이 입양 보내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 마라도 고양이 가족 찾기 사진전을 정책위원회 ‘국제평화재단’의 협조로 제주국제평화센터 1층에서 7월 25일부터 8월 25일까지 진행합니다. (사진전은 8월 1일부터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1층에서도 동시 진행 예정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진전 공간 협조가 가능하신 기관 및 단체들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전시 중인 마라도 고양이들의 사진과 소개글을 공유합니다.  
정책위원회 여러분의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사	진	소		개
		겁순이		(남/4~5살)
		겁이 많아서 겁순이에요. 숨숨집에 꼭꼭 숨어있어요. 그래도 간식은 조아! 아참, “나가~” 라는 한국말을 할 줄 이세요! 동물농장에 출연해야하나?		
		결이		(여/2~3살)
		여기는 아직 낯설어요 빨리 나가고 싶어서 요리조리 와따가따해요 그렇지만 봉사자엄마와는 마음이 잘 통해요 밖에 놀러오는 친구들과 인사도 잘해요		



곰이

(여/2~3살)

해먹 위에서 쉬는 걸 좋아해요  
간식은 좋는데 너무 혹 가까이 오면  
무서우니까 살금살금 와주세요



나나

(여/2~3살)

가까이 오면 무섭지만 자주 보는 이모랑  
봉사자언니들은 갠차나여.  
오독오독 스낵 마시썬!  
여기서 제일 예쁜 고양이? 나! 나! 나나!



나무

(남/2~3살)

케이지 안에 꼭 숨어있다가  
봉사자누나들이 가면 배꼽 나와서 돌아오  
얼굴 막 가까이 들이밀면 무서워요  
그래도 해치지 않아! 천천히 친해지자냥!



네오

(여/2~3살)

옛날엔 만져주면 좋아서 막 얼굴도 부본는데  
요즘은 좀 귀차나요  
그래도 봉사자 엄마가 걸어준  
예쁜 목걸이는 내가 젤루 잘 어울릴 걸!



단이

(여/2~3살)

나는 조금 소심쟁이애오  
구석 자리에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  
간식은 아무도 없을 때 모올래 먹어야  
더 맛난거 가타요





도도

(남/2~3살)

짧고 동그란 꼬리가 내 매력 포인트!  
이름이 도도라서 아주 조금 도도해요  
날 잡기는 힘들걸요  
그래도 밖에서 우다다 놀이하는 건 쏘아!



레오

(남/2~3살)

나는야 매력 넘치는 치즈냥이!  
케이지 밖에 나갈 수 이저만 케이지 안이 편해용  
간식도 쏘아해용. 아,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루나

(남/4~5살)

몸집도 작고 눈도 뚱글뚱글 예쁘지만  
이래봐도 나는 용감한 남자냥이다냥!  
(사람은 아직 조금 무서운 건 비밀이에요)



루이

(남/2~3살)

나는 매력 만점 까만냥이, 루이애오  
키도 크고, 듬직해서 어딜 가든 존재감 뽐뽐!  
마이웨이 스타일이지만 간식 주면 쏘아해줄게



리치

(남/2~3살)

나는 원래 좀 까칠한 편이었는데  
봉사자엄마가 엄청 순해줬다고 말해써오  
아직 사람이라 친해지지는 않았지만  
어쩐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 가타오



모노

(여/2~3살)

이모도, 삼촌도, 언니도, 오빠도 쵸아요.  
노는 것도 좋고, 부비부비도 너무너무 쵸아요.  
내가 마라도 고양이 중에 제일 인싸다냥!!!



모리

(여/2~3살)

모리는 사람보다 고양이가 더 편해오  
다른 친구 케이지 안에 붙어있으면 포그내  
사람들이 싫지는 않지만 만지는 건 별로애오



바하

(남/2~3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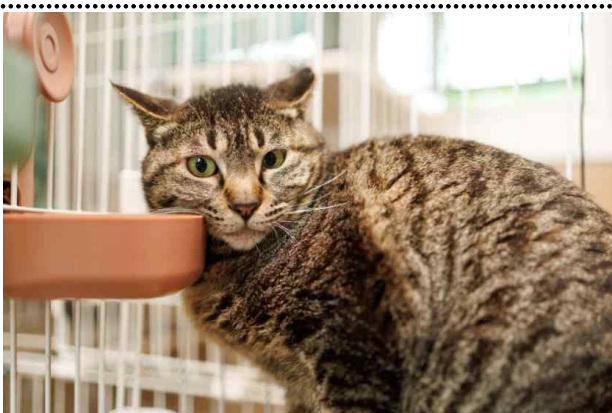
바하는 작고 귀엽고 소중해  
조금 무섭기는 한데 사람이 시른 건 아니애오.  
간식 주면 잘 먹어오. 간식 맛이써!



보니

(남/2~3살)

나는 똑똑한 고양이! 봉사자엄마는 내가  
말귀를 잘 알아듣는대오  
사람은 아직 조금 무섭지만 너무 궁금해오!



산이

(여/2~3살)

난 사람은 조금 무서워서 케이지 안이 편했는데  
요즘은 슬금슬금 나들이도 나가요  
그리고 맛있는 간식도 너무 쵸아요  
맨날맨날 간식 주면 조که따





살구

(남/2~3살)

친구들이랑도 신나게 잘 놀고,  
봉사자엄마랑 술래잡기 하는 것도 넘 재미써요  
하지만 사실 내 MBTI가 I인건 비밀이다냥!



새봄

(남/2~3살)

나는 아직 여기는 조금 싫고 무서워요  
하악질 조금 해도 이해해주새오  
이 컨테이너에도 새봄이 뽀니 오면 좋겠다



샤샤

(여/2~3살)

마라도 고양이 중에 내가 일등 애교쟁이!  
머라고요? 일등 수다쟁이라고요?  
그게 다 사람이 너무 조아서 그래요!



송이

(여/2~3살)

송이는 작고 귀엽지! 우다다 발도 빨라오!  
사람은 싫지 않은데 같이 노는 건 재미없서!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재미나요



신비

(남/2~3살)

얼굴도 둥글둥글, 몸도 둥글둥글,  
성격도 둥글둥글. 하지만 아직 만지는 건  
별로인 거 가타요. 그래도 간식은 조아요



심바

(여/2~3살)

까만냥이 중에서도 제일 꼬꼬해서 인형 같대오  
아직 조금 무섭기는 하지만 사람들 손길에  
이제 조금 익숙해지려고 해오  
내 진짜 가족 만나면 더 좋아질 거 가타요!



아름

(남/2~3살)

사람은 조금 무서운데 맨날 보는 봉사자엄마랑  
자주 놀러오는 이모들은 이제 좀 편해오  
그래도 마징가 귀는 어쩔 수 업서



얼큰이

(남/2~3살)

나는 얼굴이 큰 게 아니라 털이 찢 거라구요  
눈을 살짝 다쳐서 눈물이 자꾸 나지만  
울보는 아니다냥!  
따뜻한 햇빛에서 뒹굴 거리는 거 조아해오



엘리

(여/2~3살)

아가들하고 같이 여기에 와썬요  
아가들은 더 좋은 데로 보내썬  
하지만 씹씹하게 간식 잘 먹고 지내고 있지!  
다리가 하나 없지만 우다다도 엄청 잘해오



요미

(여/2~3살)

처음엔 무서워서 하악길도 많이 했는데  
이젠 조금 편해져썬요. 우다다를 쵸아해오  
특히 봉사자엄마랑 하는 슬래잡기 최고!





우주

(남/2~3살)

조금 겁쟁이이긴 하지만 자주 보는 이모,  
누나들은 이제 조금 편해져서요  
바깥 구경도 이제 슬슬 재밌어지고 이썬요



은비

(여/2~3살)

접은 많은 편이지만 순둥이애오  
만지려고 하면 귀가 자꾸 납작해지지만  
해칠 마음은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냥



지키미

(여/2~3살)

나는 이 구역 제일 날쌔돌이, 똥똥이 고양이!  
관심 받는 건 좋지만 궁디팡팡은 아직 이르다냥  
그래도 간식 주는 이모 삼촌은 짱 쵸아해오



찰리

(여/2~3살)

케이지 안에서 살 때는 하악질도 마니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 가까이에 갈 수 이썬요  
만지면 꺄꺄꺄꺄 놀라지만 언젠가는  
궁디팡팡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초롱

(남/2~3살)

나는 원래 대장 고양이 스타일인데  
여기는 많은 친구들이 함께 사는 곳이니까  
너무 군기는 안잡으려고 해오  
그래도 만질 땐 조심해야할 걸? 어흥!



쿠키

(여/2~3살)

나는 쿠키. 쿠키 같은 바삭한 간식을 조아해오  
그런데 사람들이 없을 때만 먹어여. 냘냘  
자주 보는 얼굴들 아니면 조금 무서워오



탄이

(남/2~3살)

사람이 막 엄청 좋은 건 아닌데  
만지면 막 엄청 시큰 것도 또 아니애오  
인생은 마이웨이! 나는 내 갈 길 간다!



토비

(남/2~3살)

사람이 가까이 오면 겁도 나고 좀 떨려서  
가끔 하악질도 해요, 그래도 친구들은 쪼아  
그리고 간식도 쪼아오!  
언젠간 사람들도 좋아질까요?



하랑

(남/2~3살)

하악질 대장애오 으르렁거리도 하고요  
처음 잡혀올 때 너무 무서웠어서 그렇기봐요  
화를 많이 내지만 오뎅꼬치로 콧잔등을 긁궂  
해주면 이상하게 기분이 쪼아져오



후추

(남/2~3살)

사람도, 이 공간도 아직 낯설고 무서워서  
케이지 구석에 꼭 박혀있는 게 편해오  
간식은 사람들 없을 때만 먹어오, 함냐함냐